

나주에 전력반도체 생태계 조성... 지역 반도체 산업 청신호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사무소 개소...전력 기업·전문가 활동 전문단체
켄텍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 소자 부품 국산화 정책 제안 등 활동 방침

나주시가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한국 전력소자산업협회 사무소 유치해 '전력반도체 생태계 기반'을 본격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반도체 산업 불모지 극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나주시는 최근 한국에너지공단(KENTECH·켄텍)에서 전력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호남사무소 개소식과 함께 전남도·나주시·켄텍·소자협회·주디시오 등 유관기관,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력 소자란 전기기기의 전력 변환, 제어, 안정화 등을 수행하는 전력반도체 등 핵심 부품을 의미한다. 고효율·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종 전기 시스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는 2016년 설립돼 부산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국내 70여 개 전력 소자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전문 산업단체다.

나주시는 그간 기후·에너지친산업 인프라 집적 지로서 직류(DC)산업,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기자체 국산화 허브 조성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이번 호남사무소까지 유치함으로써 에너지수도 나주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 켄텍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전력 소자 부품 국산화 정책 제안, 기술 콘퍼런스, 기업 지원·유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에선 전력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 디시오와 업무협약을 맺고 켄텍 내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기술 협력, 투자 연계 방안을 협의하는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의 실질적 첫걸음을 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사무



나주시는 지난 19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력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호남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소 유치를 계기로 전력반도체 부품 국산화와 기술 자립을 목표로 기업 유치, 인재 양성, 정책·행정 지

원까지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나주를 호남권 전력반도체

중심지로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 산책하고 5000원 쿠폰 받으세요”

매달 500명 걷기 챌린지 이벤트...스탬프 응모 후 추첨

장성군이 2025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챌린지 이벤트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황룡강 꽃길과 장성호 수변길, 축령산 편백숲길, 백양사 단풍길 가운데 2곳을 걷고 스탬프를 모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매월 500명에게 5000원 상당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휴대전화에 '워크온' 앱을 설치한 뒤 '걷기 좋은 건강도시 장성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워크온 챌린지'를 선택하면 된다.

장성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장성군은 '2025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택시를 타고 장성을 관광하는 '고개 맞춤형 관광택시'와 축령산 등산객들이 주차장으로 복귀할 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명품숲 투어 어게인',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음악 나눔 버스킹'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성의 명소를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은 건강도시, 활기찬 장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 청소년에 문화·스포츠 배움의 기회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발레·미술 등 13개 분야

화순군이 '2025년 3분기 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176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화순군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 분기 다양한 체험 중심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은 ▲전격의 '스포츠' ▲다트의 '어택' ▲그림책 속 레시피 '리딩푸드' ▲반짝이는 '발레' ▲전략의 시작 '체스' ▲나도 '베이킹' 명장 ▲홀드업 '클라이밍' ▲그림 밖 상상력 '창의 미술' ▲'통기타' 초급 ▲'마술' 비하인드 ▲'통기타' 중급 ▲'돌이랑 놀자' '바둑' ▲현의 울림 ▲'바이올린' 등 총 13개 분야로 청소년들이 활동의 주체가 되어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3분기 프로그램은 7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운영되며 화순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5일부터 10일까지 화순군청소년수련관 누리집 (<https://hwasunyouth.kr/>) '프로그램 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기 강좌의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기에 관심 있는 청소년은 서둘러 신청하고 참가 확정자는 추후 문자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소년수련관 누리집 또는 061-379-5167(문화 프로그램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

임경우 화순군 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획한 배움의 장이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자신감을 얻고 마음껏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군, 명함으로 전하는 청렴 의지

공익 제보 안내 정보 등 제공...비위 신고 등 창구 접근성 높여

강진군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과 주민 신뢰 제고를 위해 2025년 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청렴명함'을 새롭게 기획·제작해 배포에 나섰다.

'청렴명함'은 2025년 강진군 청렴 시책 중 대표적인 신규 도입 과제로 공무원이 민원인 또는 외부 기관과의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청렴 의지를 전달하고, 공익 제보 안내 정보를 병행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에 제작된 명함은 앞면에 이름, 직책, 부서 등 기본 인사사항과 함께 본인의 사진을 지브리풍 일러스트로 변환한 이미지를 삽입해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공직자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디자인됐다.

뒷면에는 '강진군 공익제보센터 전화번호', '청탁금지-투명한 업무 처리' 등 청렴 실천 다짐 문구를 담아, 명함을 받은 민원인이 공직자의 청렴 의지를 체감하고, 부조리나 비위 행위에 대해 보다 쉽게 신고 창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명함은 단순한 행정 홍보물을 넘어, 공직자의 청렴 의지를 일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통 도구로 기능하며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청렴에 대한 자발적 실천 계기를, 군민들에게는 신뢰받는 강진군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재이 기획홍보과장은 "일상적 소통 수단을 통해 공무원이 스스로 청렴 의지를 표현할 방안을 고민했다"라며 "청렴명함은 그 첫 사례로서, 행정 내부와 외부 모두에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상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청렴 실천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신뢰받는 강진군'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장성 관광하고 카페·음식점서 선물도 받고

지역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다음달부터 여행·선물 증정 행사

전국 최대의 편백숲을 품은 장성군과 대나무 생태숲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로 유명한 담양군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장성군은 지난 20일 청사에서 김한중 군수와 정철원 담양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장성군·담양군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홍보·방문객 유치', '지역 연계 관광상품·프로그램 개발·관광 마케팅 추진', '지역축제 연계 프로그램 개발·교류행사 추진',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2025 장성 방문의 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쏟아낸 장성 여행 담당할게' 행사를 추진한다.

이웃한 담양 관광지를 방문 후 장성으로 이동해 카페나 음식점에서 당일 3만원 이상 결제하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담양군도 장성을 관광하고 담양에서 일정 금액



김한중(오른쪽) 장성군수와 정철원 담양군수가 지난 20일 장성군청 상황실에서 '장성군·담양군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을 소비하면 선물을 주는 '담양 넘어 우리 함께 여행할까' 행사를 마련했다.

양 지역 '여행·선물 증정' 행사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웃사촌 담양군과 함께 전남 관광의 매력을 높여줄 즐겁고 풍성한 여행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군, 상담부터 채용까지 '원스톱 고용 서비스'

'일자리종합안내센터' 개소
직업훈련 연계·정책 안내 등

장흥군이 지난 20일 '일자리종합안내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일자리종합안내센터는 '전라남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구축된 것으로, 도·군·(재)전남인력개발원이 협약을 맺고 민·관이 공동 운영하는 통합 고용서비스 거점이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구직자 상담, 직업훈련 연계, 기업 채용 정보 제공, 고용정책 안내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장흥군은 센터를 통해 장흥바이오산업단지와 장흥·장평농공단지 등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구인·구직 간 미스 매치 해소와 지역 인력난 해



장흥군이 지난 20일 '일자리종합안내센터'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센터 개소는 군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실질적인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

함평 관광 후기 남기면

20명에 농특산물 세트

지역 매력 홍보...8월29일까지

함평군이 여름 관광기를 맞아 오는 8월 29일까지 관광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관광객의 생생한 후기를 통해 색다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사계절 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함평을 찾은 관광객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함평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여름 특색이 잘 드러나는 함평군 관광사진 2장 이상과 함께 후기를 게시하면 된다. 게시 후기는 향후 관광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중 처음 개최하는 '함평 물놀이 페스



함평엑스포공원. <함평군 제공>

타'와 연계 운영해 축제를 찾는 관광객도 자연스럽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은 참여자 중 20명을 선정해 3만원 상당의 함평 농특산물 선물 세트를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중순 함평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진행한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욱 함평군 관광정책실장은 "관광객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진솔한 후기를 통해 함평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벤트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